

제주민요 歌唱者論

I. 서언

우리 전통 문화 속의 음악은 여러 가지 장르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판소리와 같은 경우는 특별한 예능 수준에 와 있는 광대들에 의해서 향유되었고 창자와 향유자가 특정인에 불과했다.

과거의 많은 사람들에 의해 향유되던 음악문화가 민요라 할 수 있다. 민요를 부를 수 있는 가창자와 향유계층은 대중이다. 곧 민요는 민중들의 소용적 가치 곧 노동이라는 일 혹은 의식, 유희 등 어떠한 기능적 쓰임에 의해 불림으로 자신들의 소유물로서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선소리를 할 수 있는 창자는 제한되어 있다. 우선 문서(가사)의 엮음이 아주 좋고 가창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말한다. 또 음악적 능력이 뛰어난 자로 선소리를 유창하게 구연할 수 있는 이들이다. 곧 민요 가창자라는 것은 후렴 정도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소리를 이끌어갈 수 있으며 음악성이 뛰어나 그 집단에서 인정을 받아 공공연히 선소리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로 정의될 수 있다.

민요의 습득과정에 초점이 맞춰지면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 요인, 그리고 자신 스스로의 교육과 훈련에 의해 얻어진 능력을 들 수 있다. 또 노래 창자를 논하는데 있어서 성 구분은 상당히 중요하다. 흔히 구비문학의 향유자에 있어서 여성 창자의 우세를 주장하여 왔었고 여성요가 대부분이다.

그것은 문자로 자신의 정서를 표출하기보다는 문자를 알지 못했던 여성들의 정서를 구전한데서 연유된 까닭도 있을 것이다. 삶의 표현인 주체로서 노래는 '가장 진솔한 것'이라는¹⁾ 인식은 우선적으로 여성들에 있어서 강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노동 속에서 노래의 기능은 중요한 삶의 축대로 작용했다.

한편 시대 변화에 따라 기계문명의 발달로 노동이나, 의례, 연희 기능이 달라지고 가창자들의 연령 계층도 달라지고 있다. 이들은 진정한 구비문학의 향유세대라 볼 수 없기 때문에 노래의 소멸시기에 속한 시기 일부 사람들에 의한 노동기능과 관련하여 노래의 존속여부 혹은 세대별, 지역별, 가창자의 특성에 대한 전승양상 파악이 가능하다.

우선 노래를 향유하는 세대를 현재를 기준으로 70대, 60대, 50대 등으로 구분한다면 각 세대들의 특징은 우선,

70대 이상의 고령의 창자에게서 노래를 찾고 수집할 수 있으며 더불어 고증도 가능하다. 이 세대에 속한 그들은 노래와 기능을 같이 병행한 사람들로 흔히 우리의 전통 민요를 그 전 세대와 더불어 향유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60대는 노래

1) 강진옥, 「여성 민요 창자의 존재양상」, 『한국고전 여성작가연구』(태학사, 1999), 196쪽.

전수자로서 역할이 중요하다. 이들도 역시 노동에 직접 참여했고 눈으로 경험했다. 노동기능 없이 배워 익힌 50대 이하는 노래 전승 의지를 갖고 노래를 전승하는 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재 민요는 과거의 민속으로보다는 예능으로 보기 위해 기능을 변화시킨다거나 인위적으로 재현하여 내용을 변화시키거나 일상생활과 비일상적인 생활 맥락에서 단절되어 독립적인 것이 되는 생활과의 관계변화를 일으켰다.²⁾ 민요의 현대적 변용과 함께 일어나는 창자들의 특성 고찰은 제주 민요의 전승 상황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창자의 노래 기능 구분과 노래 존속의 여부, 가창자의 노래 학습 동기 및 학습 과정, 제주 민요 가창자의 일반적 특성, 가창자의 세대별 특성, 창자 소재의 지역 집중 현상 등을 찾고자 한다.

집중적으로 제주지역 중심으로 2001~2003년에 이루어진 한국케이블텔레비전 제주방송의 자료를 바탕으로 논하고자 한다.

II. 기능 구분과 전승양상

1. 노동요

1) 농업 노동요

제주에서는 반농반어에 의한 농업과 어업 노동이 주를 이뤘으나 전통 농업 노동은 주로 밭노동이 중심이 되었다. 일련의 농사행위로 밭을 일구는 노동인 따비질, 소나 말을 이용하여 밭갈기 그리고 일군 땅에 흙덩이인 곰베를 이용하여 씨를 뿌리고, 우마를 이용하여 밭을 밟아 씨를 착상시킨다. 밭을 밟는 것은 바람이 많고 화산회토인 토양의 특성상 씨앗이 날리지 않게 하기 위한 방책이었다.

밭에 김을 매면서 곡식이 여물면 보리를 훑고 타작을 하는데 밭노동과 함께 불려지는 노동요는 주로 농사관행에 따라 이루어졌다. 논농사요는 서귀포시 강정동을 비롯하여 논농사를 위한 씨레질 소리와 나록 홀트는 소리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되었다.

가장 최근까지 농사기능과 더불어 노래가 남아있는 '김매는 소리'다. 김매는 소리는 다양한데 토양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발달했다.

가창자의 성 구분은 남녀가 같이 노동과 노래를 하는 경우가 많으나, '밭 가는 소리', '따비질 소리', '씨레질 소리' 등과 같이 힘이 드는 남성노동과 불려지는 경우는 주로 남성들에 의해 불려졌다.

대체적으로 창자들은 15-16세 가량부터 노래를 습득하면서 처음 부르기 시작했고 현재 가창이 가능한 연령도 70대 후반이다. 이러한 농업 노동요들은 이르면 60

2) 사꾸라이테스오, 「제주도 민속 음악의 현대적 변용」, 『민요론집』 제5호(민요학회, 1997), 491쪽.

년대와 70년대 과수원과 농업의 기계화로 노동기능이 바뀌면서 노래 역시 소멸되

노동의 종류	노래와 기능자 존속 여부	기능의 소멸시기 및 노래 학습 방법, 가창기연	비고
따비질 소리	안덕면 덕수리 김대옥	1960년대까지 부름, 16세 때 아버지를 통해 습득	사망
밭가는 소리	안덕면 덕수리 김대옥	1970년대까지 부름, 16세 때 아버지를 통해 습득	사망
곰베질 소리	조천읍 선흘리 이문자	1948년 이후 양잠단지 개간하면서 부르기 시작, 김두행에게서 습득. 1970년대 말까지 부름	
씨레질 소리	서귀포시 강정동 최종선	15세 때 아버지에게서 배움, 1970년대까지 노동과 함께. 민속경연대회 참가 계기로 집중적으로 부르게 됨	강정 지역 중심의 노동요, 한국민속 축전에서 문화 관광부 장관상
걸름 불리는 소리	남원읍 의귀리 김예	1948년 4.3을 계기로 사라짐	
밭 불리는 소리	애월읍 상가리 양홍준	1950년경에 어머니에게서 직접 배움. 1960년대 중반까지 부름	
밭 매는 소리	노래가 다양 남녀가 같이 부름 아웨기 - 구좌읍 송당리 고순선 사대 - 구좌읍 행원리 김영자, 강등자 홍애기 - 표선면 성읍리 홍복순 굽이 사대 - 애월읍 광령리 고승열	·15세부터 검질매는 소리를 함. ·짧은 사대 소리의 구좌 어촌 소리권의 특징 ·친정 어머니 이생화 에게서 노래 습득 ·14세부터 작업과 노래, 추춤 소리가 특징	지역별로 다양하게 불러짐
마당질 소리	노래가 단순, 남·여 공동 작업 김옥자	1960년대 말까지 작업	사망
뭍쉬모는 소리	구좌읍 행원리 한태섭 애월읍 장전리 양춘화	23세 때부터 직접 말을 키움. 1970년대까지 불러짐	

었다.

표1. 농업노동요 전승양상

농사의 기계화 계기는 1966년도에는 동력 탈곡기는 전도 338대였으며, 10년 후인 1976년에는 3.2배가 넘는 1091대가 되었고, 한편 밭가는 기계는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던 1970년대에 많이 보급되었다.³⁾ 곧 생업의 기계화는 음악적인 양상을 변화시키고, 기능과 동떨어진 노래들은 현장을 이탈하여 기억 속에 남아 있을 뿐이다.

2) 어업 노동요

제주에서 바다를 이용한 어업노동은 비좁은 땅의 한계를 벗어나 새로운 영역의 개척지로서 의미를 지닌다. 고기를 잡아 생계를 꾸려갔을 뿐만 아니라, 여성노동력을 이용한 잠수 어업은 1920년대 강점기 이후 해산물의 상품가치 인정과 일본의 잠수기 어업, 일본 아마(海女)에 비해 제주 잠수의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으로 일본인의 제주해녀의 노동력을 인정하여 출가 물질에서 제주 해녀들을 인솔해 감으로 인해 제주여성의 대표적 노동이 되었다.

특히 1960-70년대 해산물의 일본 수출은 해녀 노동력의 가치를 인정했다. 해녀들은 그들의 정서를 노래를 통해 표출할 줄 알았다. 노래에는 물질하는 여성들의 삶의 반영으로서, 제주여성의 상징으로서의 삶의 고통과 절망, 기쁨과 희망, 소망과 극복의 의지 등도 표출하고 있다.

실제로 어업노동의 비중에 비해, 해녀노래를 제외하면 어업노동요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멸치 떼가 밀려오면 멸치를 후리면서 불렀던 ‘멸치 후리는 노래’, 그리고 추자 지역의 멸치 작업 노동에 따른 일련의 노동행위와 함께 불려지던 ‘닷댕기는 소리’ - ‘노젓는 소리’ - ‘멸치잡는 소리’ - ‘가래질 소리’ - ‘상사소리’가 있다. 조천 지역이나 삼달 2리에서 불려지는 ‘갈치 낚는 소리’, ‘테우 노젓는 소리’ 등은 노래 역시 일부 가창자로 제한되고 있어서, 민요 중에서 해양문화로서의 가치는 여성들이 불렀던 해녀노래에서 찾을 법하다.

어업분야에서도 기계화는 노동과 노래들을 분리시켰다. 전도의 어선수가 1968년에는 무동력선이 1115척에 대하여 동력선이 439척, 1974년에는 무동력선이 415척, 동력선이 539척이나 된다. 결국 노 젓는 소리 대신에 발동기 동력선의 엔진 소리가 노동요를 대신한 셈이다.

표2. 어업노동요 전승양상

3) 제주연감(1969), 제주통계연보(1982) 참고

노동의 종류	노래와 기능자 존속 여부	기능의 소멸시기 및 노래 학습 방법	비고
해녀 노래	구좌읍 행원리 안도인	직접 물질, 해녀 인술자 1960년대 습득	사망
테우젓는 소리	성산읍 삼달2리 강성태	1960년 초 마을 이배근씨에게 학습. 1960년대 후반 소멸	
테우 내리는 소리			
멸치 후리는 소리	제주시 김녕리 김경생 제주시 박순재(여, 54) '멸 후리는 소리' '서우젓 소리' 잘함.	직접 작업, 1960년경에 성황	사망 도무형문화재 제 10호(1986)
갈치 낚는 소리	성산읍 삼달 2리 강성태	1960년 초, 30세쯤에 학습	
닷 땡기는 소리	추자읍 신양리 박동률	18세에 노동과 함께 노래	
노젓는 소리	"	"	
멸치 잡는 소리	"	"	
가래질 소리	"	"	
상사 소리	"	"	

3) 임업노동요

산에서 나무를 자른 후 집으로 끌어와 목재용으로 나무를 쪼개서 가옥이나 배를 만들었다. 특히 나무를 쪼개 오리는 데는 대톱이 이용되었는데, 대톱은 여럿이 힘을 합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므로 노래가 필요했다.

제주지역에서도 임업 노동요는 쉽게 부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노래가 아니다. 거의 유일한 창자로 안덕면 상천리 박정환이 있고, 이 노동은 1970년대까지 이루어졌다. 애월읍 상가리 양홍준의 '낭싸는 소리'나 한림읍 귀덕리에서 불려지는 '낭오리는 소리', 혹은 '나무켜는 소리', '나무를 산에서 끌고 오는 소리'는 한라문화제 출연을 위해 연습하는 과정에서 전승되었고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또한 풀베는소리는 '출비는 홍아기'로 알려져 중산 간 지역에서 불리고 있다.

노동의 종류	노래와 기능자 존속 여부	기능의 소멸시기 및 노래 학습 동기	비고
나무 베는 소리	안덕면 상천리 박정환	직접 노동과 함께 노래 익힘, 1970년쯤 소멸	
나무 켜는 소리	애월읍 상가리 양홍준	1970년 초 노동소멸, 한라문화재 참가하기 위해 재구성	
나무쫓개는 소리			
나무 깎는 소리	안덕면 상천리 박정환	1970년 경 노동 소멸	
나무내리는 소리	한림읍 귀덕리 이용우	한라문화재(1998) 참여 위해 노래 학습	
꿀베는 소리	남원읍 신흥리 김석중	17세쯤 마을 분들에게 직접 배움	

표3. 임업노동요의 전승양상

4) 제분 노동요

마을마다 탈곡기가 들어오고 제분기로 곡식을 찧는 방앗간이 생기기 이전에는 보리와 밀 등의 곡식을 맷돌이나 방아를 이용하여 갈아 음식을 했다. 여성들은 12-15세 정도 되면 어머니에게서 노래를 익히고 작업을 거들었다. 곡식을 뿜고 그리고 으깨는 일은 주로 여성들이 담당하는 작업이었다.

여성들이 다양한 정서를 노래하기에는 맷돌이나 방아를 찧는 일처럼 장시간, 힘이 덜 들고 한적한 시간에 이루어지는 노동이 제격이었다. 맷돌방아 사설에는 제주 여성들의 세계관과 자아가 서정화 되어 표현되고 있고 제주인의 얼과 정신이 담겨 있다. 노래의 사설은 아주 다양한데 사설 면에서 각편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창자들은 자신들의 노래를 음악상자로 헤아렸으며 아홉 상자 반이라고 인식했다.

표4. 제분노동요 전승양상

노동의 종류	노래와 기능자 존속 여부	노래 습득 시기와 기능의 소멸 시기	비고
맷돌 소리	남원읍 신흥리 김갑생 표선면 성읍리 조일수	·15세 적부터 맷돌작업, 47세까지 1960년대 후반 소멸. ·고소리 술, 오메기 술 재연과 함께 작업	
방아소리	조천읍 함덕리 이명숙	12살 때부터, 아버지 이예권에게서 배움	사망
연자매소리			

5) 관망(冠網)노동요

양반들이 쓰는 갓이나 탕건, 모자, 망건을 제작하면서 부르는 노동요를 ‘관망노동요’라고 한다. 화북, 조천, 도두 포구를 중심으로 인근 부락에서 성행했는데 말총을 이용하여 주로 아녀자들에 의해 행해졌다. 조선조의 계급 사회에서 양반의 신분을 상징하는 이러한 물품 생산은 신분 사회가 끝나고 4.3사건을 거치면서 거의 소멸되게 된다.

포구 가까운 곳에 있는 오일장에는 한 장도막 동안 만든 물건들을 팔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당시 화북, 도두, 조천 지역에서는 탕건청, 망건청이 운영되기도 했다. 노동은 대체로 망건청에서 10살 경부터 동네 선배들에게 직접 기능을 배우고, 노래는 동료들이나 어머니에게 배웠다.

표5, 관망노동요 전승양상

노동의 종류	노래와 기능자 존속 여부	노래습득 및 노동기능의 소멸 시기	비고
양태 짓는 소리			
탕건 짓는(짜는) 소리	조천읍 신촌리 고수천	21살까지 작업, 1948년 경 기능소멸 원인은 육지부에서 물건을 받으러 오지 않음. 10살 경부터 작업하고 가르치는 선생이 있었음.	
망건 짓는(짜는) 소리	제주시 화북동 김태매	10살 부터 작업, 어머니에게서 노래와 기능을 배움	
모자 짓는 (짜는)소리			

표6. 잡역노동요 전승양상

6) 잡역노동요

‘방앗돌 끌어내리는 소리’를 비롯하여 ‘디딤불미소리’ 혹은 ‘집줄놓는소리’ 등 기타의 노동을 잡역 노동요로 분류하였다. 특히 이러한 노동들은 제주 전역에서 불리지 않고 일부 지역에서만 불리는 경우가 흔하다.

디딤불미소리와 같은 경우는 안덕면 덕수리와 구좌읍 덕천리 등 일부지역에 불미작업이 행해지던 지역에서 유별나게 불렸으나 지금은 덕수리에만 남아 있다. 덕수리에 디딤불미가 시작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80년 전의 일이다. 노래는 바람을 내어쉬를 녹이고 일하는 일꾼들의 힘을 돋우려는 의도로 불렸고 1930년경에는 대정현의 기생들을 불러다가 노래하도록 했다. 대체적으로 노동기능이 60년대 초를 지나면서 사라져 노래와 기능간의 밀접한 관계는 없다.

집터 다지는 일은 1945년을 지나면서, 원달구와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고, 사람과 소나 말을 이용해서 터를 다지게 되었다. 집줄 놓는 일은 197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노동의 종류	노래와 기능자 존속여부	노래 습득 및 기능의 소멸시기	비고
방앗돌끌어내리는소리	안덕면 덕수리 강원호 1994년 문화재가 됨	덕수리에 1960년대 초 까지 툄방앗간 (말방앗 간)이 10개소가있었음	제주도 무형문화재 9호로 지정(1986) 보유자 사망
똑딱불미소리			
디딤불미소리	안덕면 덕수리 홍기화	15세, 1930년에 대정 기생들이 노래함, 1960 년대 초까지 불미작업	
집줄놓는소리	안덕면 덕수리 송평우	23세에 배움, 1970년 까지 작업, 1981년 전국 민속경연대회에 문화공 보부 장관상	유일하게 덕수리에 서만 전승됨
짚두드리는소리			
집터다지는소리	서귀포시 예래동 강승화	일곱살적에 마을 분 임 인백에게서 배움. 1945 년 경에 사라짐	‘원달구짚소리’라 고 도 함
흙이기는소리	대정읍 신평리 송서천	1988년 문화재 출연위 해 연습, 2009 탐라문화 제 대상	‘질뜨림소리’ 라고 도 함
흙질소리	표선면 성읍리 송순원	18살 때 배움, 1960년 대 까지 작업	
흙긋 불리는소리			

표7. 장례의식요 전승양상

2. 장례의식요

장례의식과 관련하여 불리는 의식요는 ‘행상소리’, ‘달구소리’, ‘진토긋파는소리’, ‘꽃염불소리’가 있다. 접군 혹은 골군, 유대군이라고 부르는 마을의 남정네들이 상을 당하면 서로가 부조를 하여 장례를 치르게 된다. 상여접을 운용하기도 하고 우선 이러한 일의 책임을 담당하는 대표자인 소임은 마을에서 두 사람을 두며 장례를 치르기 위해 70명 정도가 동원된다.

현재 이러한 의례가 남아 있는 마을들이 있다. 특히 제주시 동쪽 지역 중에서 구좌읍 행원리나, 종달리와 같은 곳에서는 지금도 상여를 메고 달구질을 직접하며 진토를 파면서 노래를 한다. 상여는 보통 마을을 벗어날 때까지 마을 장정들이 메고 가고, 그 뒤를 따르는 마을 부인네들이 설배를 메어서 장례행렬의 흥성스러움을 돕

노동의 종류	노래와 가창자 존속여부	노래 습득계기 및 기능의 소멸시기	비고
행상소리	제주시 도두 장상순	어머니에게 배움,	사망
달구소리	표선면 성읍리 송순원	14세에 존속 부친 송남혁에게 전수	행상소리, 달구소리 90년대 말까지
진토긋파는소리	구좌읍 종달리 김수길	20세부터 부르기 시작, 같은 마을 고인이 된 최운봉, 오두봉에게서 습득	다섯개의 상여집이 있고, 진토를 지미봉 마을 공동묘지에 흙을 파서 사용
꽃염불소리	한림읍 귀덕리 이효순	17세 제주시 화북에서 살면서 이 의식을 보고 노래 익힘, 지금으로부터 54세까지 행해짐	

는다.

장례의식은 사람이 죽고 이별을 해야 하는 의식이나 노래가 있어서 슬프지 만은 않다. 제주시 화북과 같은 지역에서는 전날 밤 빈 상여를 들고 마을을 돌면서 ‘꽃염불소리’를 하기도 했다.

3. 창민요

창민요는 흔히 노래의 흥겨움을 즐기기 위한 곡으로 사용되고 있다. 관변에서 불리고 육지부의 경서도 민요에서 흘러 들어온 음악적 특징을 지닌다. 제주목, 조천이나 또는 정의현이 소재지였던 성읍 등에서 불리던 노래들인데, 계보는 목관아의 기생이었던 김금련에게서 배운 김주옥, 김주산의 노래 전통에서 찾을 수 있고, 또 성읍인 경우는 제대(기생)-변여옥-조을선으로 대표되는 창자에게서도 찾을 수 있다.

노래의 종류	노래 가창자 존속 여부	가창 지역과 학습방법	비고
오돌또기	일반인,고성옥(여, 47)	1993년경에 습득, 제주 전역	제주의 대표적인 민요
이야흥	일반인	망건, 탕건을 짜면서 부르기도 함.	
너녕나녕	홍송월	제주전역	
서우젓소리	무속인 중심, 일반인	석살림 굿, 신놀리는 소리 김매는 노래, 멜후리는 소리	산신, 요왕서우제.
용천검	표선면 성읍리 송인선	조을선, 성읍의 노래판	
신목사타령	표선면 성읍리 현순옥	조을선, 성읍의 노래판	경기 민요 '사철가'의 영향
산천초목	"	"	
봉지가	이선옥	"	사망
질군악	현순옥	1978년 정소암의 화전놀이	
동풍가	이미생	조을선, 성읍의 노래판	
중타령	이창순	조을선, 성읍의 노래판	
사랑가			
계화타령	강문희	조모 조을선에게서 배움	
영주십경	제주시 산천단 김주산	20세 쯤, 관덕정의 관기인 김금련 이모에게서 배움	탐라민속 예술연구소

그리고 성읍 지역에는 노래판이 있었다. 그것은 1970년대 후반까지 계모임 혹은

평놀래	애월읍 장전리 진성효	13세 때 조부님이 부르는 것 을 듣고 배움	
신해녀노래	제주시 도남동 이여수	해녀춤을 위해 노동요를 유 희요로 개작, 1969, 1971년 전국 민속경연대회 계기	
산신서우제	제주시 한춘자	김주옥에게 배움, 1986년부터 활동	

혼사 등 경사일에 모여서 놀던 노래판이 지속적으로 행해지면서 노래 전승이 가능했다. 그런데 컴퓨터나 텔레비전 등 매스컴의 영향으로 능동적인 유희문화가 수동적으로 바뀌면서 서서히 이러한 노래판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1970년대 텔레비전의 보급(6.3%)을 시작으로 1983년의 93.6%이라는 보급대 수는 전통의 유희문화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게 했다. 그래서 창민요 전승과 단절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표8. 창민요의 전승양상

Ⅲ. 가창자의 특성

1. 연령별

전승양상에 나타난 노래 습득계기 및 기능의 소멸시기를 참고하면 창자들의 각 세대별 특징이 드러나고 있다.

70대 이상은 민속의 현장을 살았고 그들의 체험을 바탕으로 노래를 만들었다. 그래서 노동기능과 노래 구연이 가능했으며 학습 방법은 직접 노동관에서 일하면서 노래를 배웠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게 된 시기와 노동을 시작한 시기가 거의 일치한다. 이들은 삶 자체가 곧 토속의 문화였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주의 문화는 노동의 문화를 바탕으로 한다.

한편, 60대는 노동과 노래를 분리해서 인식했다. 곧 노동과 노래가 차츰 분화되고 시대의 변화로 노동과 노래의 단절을 맛보았던 것이다. 자신 부모에게서 학습하고 후손들에게 전한다라는 중간 역할을 담당하는 계층이다. 특히 탐라문화제나 전국민속 경연대회를 통해 민요 학습을 전수하고 전승발굴의 역할을 담당한 세대들이기도 하다.

50대 이하는 노동 경험이 없고 선배들에게서 노래를 배웠다. 학습으로 노래습득이 이루어지고 제주 문화를 선양한다는 목적하에 예술단 활동과 병행하여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창민요들을 익히고 노동요를 소리판굿 화하거나 노동의 기능성을 재현하여 무대화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

곧 현재 팀을 구성하여 탐라문화제, 전국민속경연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보여주기 위한 일회성 행위로 그 의미는 민속이라기보다는 예능으로서의 요소가 많다.⁴⁾

2. 지역별

민요 수집 지역 중에서 가창 기능자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지역은 안덕면 덕수리, 표선읍 성읍리, 구좌읍 행원리를 꼽을 수 있다. 표선읍 성읍리는 국가지정중요민속자료 제188호로 지정된 민속 마을로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95호 제주 민요가 전승 보존되고 있는 지역이며 그 외 제주도 무형문화재 전수자가 살고 있는 곳이 있다.

안덕면 덕수리는 ‘방앗돌 굴리는 노래’(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9호), 불미공예(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7호)와 더불어 디딤불미노래가 전승되고 있다. 그래서 마을주민들의 무형문화재에 대한 인식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별하다. 특히 ‘발가는 소리’나, ‘따비질 소리’ 등의 농업 노동요를 부를 수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들을 수 없는 ‘집 줄 놓는 소리’도 전승되고 있다.

성읍은 조선조 오백년 동안 정의 현청의 소재지였던 곳이므로 관기들에 의해 전래되고 전승되던 창민요가 남아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노래를 행수기생(제대)들에게서 찾고 있으며 민간에서는 이러한 노래들을 주로 유희판 계모임 등에서 부르고 학습했다고 한다.

4) 사꾸라이테스오, 앞의 글, 490쪽.

구좌읍 행원리는 해녀들의 물질작업과 노 저으면서 불렀던 ‘해녀노래’(제주도 무형 문화재 제1호)가 전승된다. 해녀노래 뿐만 아니라, ‘막쉬 모는 소리’, 혹은 ‘상여소리’, ‘밭블리는 소리’등 농업과 관계된 농업 노동요도 잘 남아 있다. 또 구좌읍 김녕리는 멜후리는 소리가 전승되고 있다.

이처럼 지역적 특징이 두드러지는 것은 자신들이 불렀던 노래가 문화재로 지정됨으로서, 향유물이던 전통 문화에 대한 가치 인식이 다른 마을에 비해 다르다는 데서 연유한다.

마을 단위로 지정된 무형문화재를 통해 개개인이 민요를 학습할 기회가 마련되고 그 마을 전통을 마련할 계기가 되어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자산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도 키울 수 있게 된다.

결국 일부 지역이 가창자의 숫자도 많고 다른 지역과는 달리 민요들이 전승되는 것은 문화재 지정의 특수성과 마을의 문화적 전통뿐만 아니라, 탐라문화제나 전국민속경연 대회 참여를 위한 민속 환경의 변이와 재구성에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이다.

IV. 개인별 가창자의 학습과 전수

개인별 창자의 학습 전수는 다양하다. 노동기반에 의한 습득과 함께 창자와 관련된 유전적 요소 그리고 환경적 요인을 들 수 있다.

대체로 창자들의 노래 습득시기는 16-18세 경이고, 늦게는 25세 정도, 동요적인 노래들은 13세 때 가능했다.

특히 노동요인 경우는 노동 기능과 함께 습득된다. 이 노래들은 자생적이고 무의도적인 습득이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테우짓는 소리’, ‘갈치 낚는 소리’를 잘 하는 강성태는 동네 어른 이배근씨와 함께 일하면서 노래습득이 가능했다. 서귀포시 예래동의 임인백 씨가 강승화를 7살 때부터 지명하여 집터다지는 소리를 가르쳤는데, 아주 어렸을 적부터 집을 지을 때 원달구를 이용하여 집터다지는 일에 참여하고 노래를 한 경험을 통해 습득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과 더불어 유전적인 요소로서 어렸을 적부터 노래를 좋아하여 어머니에게서 노래를 배우게 된다거나 조부나 부친의 노래를 듣고 익히는 경우를 종종 들 수 있다.

비록 유전이나 환경적 요인과 더불어 예능수준이 갖춰져 있다가 특수하게 기회를 만나서 자신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창자들이 있다. 이들은 한라문화제나 전국민속경연대회를 통해 필요한 노래들을 학습하는 경우인데 행사에 참여한 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경우다.

가창자의 개인별 노래 학습의 예를 환경적, 유전적 요인과 더불어 경연대회 출연의 기회도 민요 학습의 한 기회로 삼을 만하다.